경험과 희망, 이제는 놓자!

(민21:1~9)

1.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2.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 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4.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6.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경험과 희망 이제는 놓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경험과 희망 이제는 놓자'

경험의 가치를 역설하는 많은 속담, 격언, 명언들이 있고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은 '꿈'이라는 말로 '가능성'이라는 말로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 글자로 하면 꿈이고, 두 글자로 하면 희망이요, 세 글자로 하면 가능성이요, 네 글자로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말로 회자되면서 모든 자기계발서의 핵심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희망이 넘치는지는

모르겠는데 '희망'이라는 말이 넘치는 세상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면, 과거의 경험에서 출발해서 미래의 희망을 향해 가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선민이라면 한 가지 취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의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간세상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눈앞에 나타나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합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보편성은 죄인데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 보편성입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이고 광범위한 보편성이 바로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은 보편적이면 보편적일수록 죄와 깊게 연관이 되어있고 죄에 뿌리를 박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민의 삶은 이 '죄'라는 원초적인 보편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올바른 선민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은 원초적인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거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민은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미래의 희망을 향해 가는 수평적인 움직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경험에 관한 격언 중에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뜻의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선민에게는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백 번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끌어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백 번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한 번 듣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그런데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은 '실제 한 번 보는 것이 간접적으로 백 번을 듣는 것보다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라는 말도 있고,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안다"는 말이 있는데 물을 건너봐야 압니까?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기억해보면 어떤 경험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홍해 앞에서는 모든 경험이 죽습니다. 홍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갈 뿐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지내보아야 안다'는 말도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알던 바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하고 자기의 할 일을 해나갑니까? 그 사람을 알고 맞추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괴테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장 쉽고 평범하고 단순하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꿈은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평범하고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희망의 의미를 드러내는 명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민이 계속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신6: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6~7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 네 자녀에게 부지런

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하시는데 꿈을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경험과 희망의 가치와 중요성을 찬양하는 명언이 홍수를 이루는 이 시대에 선민은 경험과 희망을 놔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선민의 삶은 주님께서 직접 오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미래의 희망을 행해 가는 것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지표면과 수평으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의 삶에 대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요3:13-15절에서 인용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16절에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의 요체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은 '주님 자신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머무르며 하늘을 아는 자가 없다'는 말씀으로 주님만이 하늘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돈이 필요한데 하늘에 대해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건강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 간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당신 혼자만 하늘에 대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지금 내 몸에 병이 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 일류대학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하늘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경험하고 아는 하늘은 나 밖에 모른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 중에서 어떤 인간도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그날 까지 이 하늘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한 절 띄어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경험하시고 주님이 체득하시고 주님이 계셨었던 그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지금 내 위에 있고 그 하늘에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요3: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말씀을 넣으셨습니다. 선민은 질병으로부터 보호 받고, 돈을 잘 벌고, 자녀들이 잘 되는 미래를 희망으로 삼아서 미래를 향해 뛰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갖는 자들입니다. 하늘을 가지려면 수직으로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부활과 승천이 이어져있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떼어서 십자가가

나를 속죄해줘서 의인이 되었으므로 이제부터 원하고 꿈꾸는 대로 세상에서 희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달려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승천과 분리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늘은 나만이 안다.'라는 말씀이고 '영생'이 뭐냐는 것인데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마음이 주님이 가신 하늘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앞에 있는 희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늘로 지금 가야하는데 '놋 뱀이 장대 위에 매달린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서 너희 마음이 내가 알고 있는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내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움직임은 과거의 경험을 발로 딛고 토대로 삼아서 미래의 희망을 향하여 쫓아가는 수평적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놋 뱀의 사건이 예표로서 가리키고 있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 수직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선민에게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불 뱀의 징계가 내리는데 그 이유는 4절에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고 나옵니다. '마음이 상하였다'는 것은 오늘 맥락에서 좀 더 내용을 충실히 살펴보자면 '짜증, 원망, 분노,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쉬움'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불 뱀의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앞의 므리바 사건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 외에는 백성들이 받은 징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지독하게 벗어나는 짓거리였는지 불 뱀을 보내서 그 독에 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불 뱀에 물려 죽어가자 그때야 백성들은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중보를 부탁하고, '모세가 놋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자 그것을 본 사람마다 살아났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상태를 오늘의 본문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상태'라는 것은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 상태가 어떠하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에돔 땅을 통과하면 팔레스타인 땅을 종횡으로 가르는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가나안 땅에 접근하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그러나 에돔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산지로 이루어진 변방으로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거친 길을 가다가 지쳐서 사람들의 마음에 짜증과 원망과 분노와 엄청난 창자를 끊는 듯 아쉬움이 생

겼는데 자기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잘못 때문이고,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38년 동안 광야생활에 적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회한다고 해봤자 2~3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상해서 짜증과 분노에 사로잡힌 것은 돌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불 뱀을 보내신 것인데 무엇이 잘못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읽은 3절까지 보면 아랏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 후에 에돔을 우회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있고, 앞에는 가나안이라는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마음은 '승리'라는 과거의 경험이 밀고 '가나안'이라는 미래의 꿈이 당기는 가운데 현실은 우회로를 가야 하는데 여기서 마음이 분노하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 문제를 봅니다. 4절에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고 합니다. 아랏과의 전쟁의 승리는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어저께까지 싸워서 이겼다 하더라도 오늘이면 이미 과거입니다. 그 아랏과의 승리의 경험이 이제 이들이 바라보는 환경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바라보니 아랏과의 전쟁이 있기 전에는 에돔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우회하는 것에 대해서 별 수 없다고 받아들이다가, 아랏과 전쟁을 하여 승리한 후에 우회로를 걷다보니 은근히 화가 치미는 것입니다. 에돔이 우리의 청을 거절하고 협상이 결렬이 되었으면 아랏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에돔을 무력으로 무찔러서 왕의대로로 관통해서 직접 도달했어야지 왜 우회하면서 고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의 승리 경험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이고, 그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마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미래의 가나안에 대해서도 아랏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므로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서 미래의 가나안을 쥐고 싶은 마음에 조급함이 더해집니다. 에돔과 전면 전쟁을 해서라도 뚫고 왕의 대로로 갔으면 이미 가나안 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뭘 하는 것이냐고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자기 마음을 찢어놓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의 경험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이룰 미래에 대해서도 죽어야 됩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경험이 마음에서 백지가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경험이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미 인격체이시며, 모든 판단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동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이 내 마음에 간직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은 그 즉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무서운 일인데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나가실 때의 의도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므로 사람들은 모세를 봅니다.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이 아

닙니다. 구름기둥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에 살게 될 땅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광야의 여정을 디자인하셨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죄입니다.

불 뱀 사건에서 '모세가 놋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 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고 했습니다. '놋 뱀을 본다'는 것의 의미는 '나와 동일시하라'는 것인데 '내 인격 안에는 뱀의 독이 퍼져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뱀의 독이 퍼져 있으므로 내 인격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불 뱀은 '나'이고 내 안에 불 뱀의 독이 퍼져 있고 뱀의 유전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뱀의 유전자'는 뱀은 긴 몸으로 땅을 기어 다닙니다. 땅의 지표를 기준으로 바라볼 때 배를 땅에 붙이고 이 지표 위를 수평으로 움직여갑니다. 여기서 앞으로 나가고, 우에서 좌로 나가고, 좌에서 우로 나가면서 항상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수평으로 움직여 갑니다. 수평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항상 과거의 경험이 출발점이 되고 미래의 꿈은 목표점이 됩니다.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고 마귀 불 뱀의 독이 퍼져서 나타나는 이 현상, 경험에서 출발해서 미래의 희망을 향해나가는 수평적 동작을 위해 모든 서점의 책들이 그것을 다 찬양하고 있고, 모든 지식인과 모든 대 문호와 모든 철학자들이 희망의 가치와 경험의 가치를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희망의 가치를 향해 부르는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경험의 가치에 대해서 수긍하고 수평적 움직임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뱀이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불 뱀을 보내신 이유는 '너희 인격 속에 잠재되어 있던 본래의 독성이 뿜어져 나온 것이고, 그 독에 감염되고 중독된 결과가 드러난 것을 알게 하신 것이므로, 불 뱀을 보면서 내 인격에 뱀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뱀의 유전자는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앞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수평운동을 본질적으로 좋아하고 편안해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여 그대로 살려고 하는 죄적기질이고 뱀의 독이 인격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 것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수평운동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이것을 끊어내고 위로 길을 내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승천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했으면 반드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제까지 내가 빚을 지고 있었다면, 십자가를 붙잡고 '빚쟁이'라는 의식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입니다. 백지화된 상태라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그려져 있는 세상의 문제와 경험적 지식들이 있는 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이 아무리 내게 주어져도 이미 내 판단과 내 생각이라는 글씨가 있으면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내가 빚진 것도 아시고, 앞으로 나갈 길도 아십니다. 원래 계획하신 것들을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내 멋대로 사느냐고 빚을 져서 엉망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그 목표지점을 향해서 가려면 이 빚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까지 살았던 일의 결과와 성과와 성취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백지화시켜야하고,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있으면 조급해지고 짜증나고 원망이 나오고 그것을 불 뱀을 보내서 물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수평선상에서 일어날 앞날의 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납득하질 못하십니다. 이 지구에서 70~80년 살면서 이루고 싶을 일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불 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장대에 달리신 놋 뱀과 당신을 일치시키십니다. 이유는 마음이 지금 수직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선민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마음이 수직으로 올라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당신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우리의 일은 늘 지금 마음을 수직으로 하나님께 보내는 수평운동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수평운동을 정면으로 잘라내고 허리를 끊어내는 수직으로 세워진 십자가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민으로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경험과 희망은 이젠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 동시에 놔버려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참! 이 경험과 희망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사는 것이 선민의 삶일 줄은 꿈에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믿음의 결과라고만 생각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주시고, 십자가 붙잡고 수직운동을 하는 동안 이 땅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